

작품 내용

제 목	음악을 들기 전에 생각한 것
내 용	「배경음악이 된 누군가의 밤」 오래된 카페는 음악이 잘 어울린다. 커피 향과 함께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멜로디는 그 공간의 분위기를 만드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한다. 내가 직접 카페를 운영하기 전까지는, 그 음악들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누군가 만들었고, 어딘가에 있고, 틀면 나오는 것이라고. 카페를 열고 나서 음악 선곡에 꽤 공을 들였다. 유명한 재즈 연주, 잔잔한 어쿠스틱 기타, 계절에 맞는 피아노 곡들.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스피커에 연결했다.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했다. 매달 스트리밍 구독료를 내고 있으니 문제가 없을 거라 여겼다. 지인 중에 음악 저작권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이 카페에 왔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매장용 음악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느냐고. 나는 스트리밍 구독 얘기를 했다. 그는 개인 구독 서비스는 공공장소에서 음악을 들기 위한 라이선스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상업 매장에서 음악을 배경으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공연권 허락이 필요하다고. 그 설명이 처음에는 낯설게 들렸다. 내가 음악을 직접 복제하거나 배포한 것이 아닌데, 단지 틀었을 뿐인데 왜 별도의 허락이 필요한가. 하지만 잠시 생각해 보니 이해가 갔다. 내 카페에 오는 손님들은 음악이 흐르는 공간에서 시간과 돈을 쓴다. 그 공간의 분위기는 음악이 만든 것이기도 하다. 그 음악을 만든 작곡가와 연주자는 그 공간 사용에 기여한 것이다. 그들에게 그 기여에 대한 대가가 돌아가는 것이 공정하다. 나는 이후 매장용 음악 서비스로 전환했다. 비용이 추가로 들었지만, 그 비용의 의미가 명확해진 뒤에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배경음악으로 흘러나오는 멜로디 뒤에는 누군가의 밤이 있다. 악보를 쓰고, 악기를 고르고, 녹음 부스에서 반복해서 연주하며 보낸 시간들. 그 시간들이 내 카페의 공기를 채우고 있다면, 나는 그것에 합당한 방식으로 응답해야 했다. 「3분 18초의 권리」 내가 좋아하는 곡이 있다. 제목도 없고 작곡가도 잘 알려지지 않은, 유튜브에서 우연히 발견한 인디 뮤지션의 피아노 연주다. 3분 18초짜리 그 곡을 처음 들었을 때, 무언가 쿡 찌르는 듯한 감정이 왔다. 슬프다고 하기엔 너무 투명하고, 아름답다고 하기엔 너무 조용한 그 곡을 나는 그날부터 오래 들었다. 동생의 결혼식 영상을 직접 편집하게 되었을 때, 나는 자연스럽게 그 곡을 배경음악으로 썼다. 가족만 볼 영상이니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영상을 완성하고 나서 그 뮤지션의 채널에 들어갔다가, 고정 댓글에서 안내 글을 발견했다. 음원 사용 시 출처를 밝히고, 상업적 사용을 원할 경우 연락을 달라는 내용이었다. 사적 사용은 괜찮다는 말도 있었지만, 인터넷에 공개할 경우에는 출처 표기를 부탁한다는 말도 함께 있었다. 나는 영상에 출처를 표기하지 않았다. 가족 단독방에만 올릴 계획이었으니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댓글을 읽고 나서 다시 생각했다. 그 뮤지션은 자신의 음악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고 싶은 것이었다. 누군가의 소중한 순간에 자신의 음악이 쓰였다는 것을, 창작자는 알 권리가 있다. 그것은 법적인 문제 이전에 창작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였다.

나는 영상 하단에 음악 제목과 채널 링크를 추가했다. 그리고 그 뮤지션의 유튜브 채널에 댓글을 남겼다. 동생의 결혼식 영상에 이 곡을 사용했는데, 정말 잘 어울렸다고. 덕분에 영상이 훨씬 따뜻해졌다고. 며칠 뒤 짧은 답장이 달렸다. 소중한 순간에 음악이 함께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내용이었다. 그 답장을 읽으면서, 3분 18초가 만들어낸 연결이 얼마나 진하게 느껴지는지를 새삼 알았다.